

전북, 신재생에너지 중심지 도약

2025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박람회, 9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서 개막

‘2025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박람회’가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C)에서 화려한 막을 올린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가 공동 주최하고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새만금 RE100 미래를 여는 THE 특별한 전북의 100년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유치에 위한 공감대 확산과 전북 에너지산업의 미래 전략을 제시하는 장으로 마련된다.

개막식은 9일 오전 10시 30분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내빈 집견과 티타임 이후 본식이 시작되며, 식전공연과 국민의례, 내빈 소개가 이어진다. 이어 이규택 전북TP 원장이 개회사를,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와 김영민 군산시 부시장이 환영사를 전한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축사에 나서며, 주요 인사들의 인사말이 끝난 뒤에는 민주연구원 배지영 연구위원이 기조강연을 통해 ‘대한민국 미래를 여는 에너지고속도로와 RE100산업’을 주제로 심도 있는 비전을 제시한다.

개막식은 퍼포먼스와 기념촬영으로 마무리되며, 내빈들은 전시관을 둘러보며 기업부스와 논문 전시를 직접 관람할 예정이다.

오후에는 방송인 타일러 라쉬가 특

별강연자로 나서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환기시키며, 산업계와 시민이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이번 박람회의 핵심 프로그램은 RE100포럼이다. 컨벤션홀2에서 열리는 포럼은 총 3개 섹션으로 나뉘어 최신 에너지 산업의 화두를 집중 조명한다.

9일 오후 진행되는 섹션에서는 장재훈 KTC 센터장 이진영 한국전기연구원 선임, 정택중 RE100협의체 의장, 김소연 에코벨 대표, 천동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이 AI 시대 RE100 산업단지의 미래, 직접PPA와 전력망 대안, 글로벌 동향: 탄소자산화, e-Fuel 생산기술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다.

10일 오전에는 손정락 카이스트 교

수, 김준성 한국전력공사 선임, 박상호 전북대 교수, 이상국 에너지솔루션 대표가 분산형 시스템과 에너지 자립 방안을 논의하며, 오후에는 이준신 성균관대 교수, 최종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 차병화 VPPJAP 대표가 글로벌 혁신 모델과 국내 실증 사례를 제시한다.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분과포럼도 주목할 만하다. 9일에는 수소 분과에서 탄소노류트 제조, 연료 전지 촉매, 수전해 기술을 중심으로 발표가 진행된다.

10일에는 풍력 분과가 해상풍력 지원강민과 국제 사례, 제도적 과제를 논의하고, 분산에너지 분과가 통합관제 설비, 전력변환기 냉각기술, AI 활용 방안을 공유한다.

전시·홍보관은 컨벤션홀1에서 이틀간 운영되며, 전북특별자치도 홍보관과 함께 18개 기업이 참가한다.

/오상근 기자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이 세계상공회의소 총회(WCC)에서 2026년 전주하계올림픽 홍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전주하계올림픽 홍보 ‘동분서주’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 세계상의 총회 참석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이 전 세계 상공인들이 모여 상공회의소의 운영·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상공회의소 총회(WCC)에서 전주하계올림픽 홍보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되고 있는 WCC 총회에서 우리 대표단의 사업이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BC 2025’ 행사에 치중하고 있음을 알고, 김회장은 ‘전주하계올림픽’을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여 총회에서 전주하계올림픽 유치가 우리나라의 주요 사업으로 반영되어

안내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올림픽과 기업간 관계’란 주제로 개최된 세션에서 세계상공인들에게 생소한 전주와 하계올림픽을 홍보하는데 집중하여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김정태 회장은 앞으로도 전주하계올림픽은 물론 올가을 개최되는 드론축구월드컵 등 전북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 행사를 홍보해 나갈 계획임과 동시에 ‘기업을 둘러싼 경제환경이 어려운만큼 글로벌 경제협력을 통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데에도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상근 기자

2025 대한민국 전기안전 컨퍼런스, 8일 개막·6개 행사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오는 8~10일 서울 세종대 컨벤션센터 광개토관 B2(A·B·C홀)에서 ‘2025 대한민국 전기안전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도되는 전기안전 컨퍼런스는 △대한민국 전기안전 대상 △사고조사 세미나 △국제 전기안전기술 세미나 △전력설비 안전성 향상대회 △PEQMD(전력설비 상태관리·진단) 세미나 △KESCO(전기설비 검사 기준) 기술세미나 등 6개 행사를 3일간 집중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 컨퍼런스를 통해 참석자들이 폭넓은 인적·정보 교류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또한 전기안전 유공자의 공적을 보다 널리 알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전기안전 컨퍼런스’ 첫날인 8일에는 △제28회 대한민국 전기안전대상이 열린다. 유공자 포상을 통해 전기안전 인식도를 확산시키는 의미로 진행되는 행사다.

이튿날인 9일 열리는 △사고조사 세미나는 최신 조사 분석 기법 공유를 위한 자리다. △국제전기안전세미나는 최신 정책과 미래기술 공유를 통해 글로벌 전기안전 생태계 선도를 위한 행사이며, △전력설비 안전성 향상대회는 유공자 포상과 함께 전력산업계 최신 동향을 공유하는 시간이다.

/오상근 기자

미국 15% 상호관세 시행 대응

정부, 중소기업 수출 지원 종합대책 마련

미국이 15% 상호관세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현장 맞춤형 종합 지원책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정숙, 이하 중기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관세 충격 완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지난 7월 31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되면서 미국의 15% 상호관세가 본격 시행됐다. 이에 중기부와 중

기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63.1%의 기업이 對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고 응답했다. 기업들이 정부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는 ‘물류지원’(73.2%), ‘정책자금’(38.8%), ‘관세정보 제공’(23.5%)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관세 지원 프로그램 △수출 경쟁력 고도화 △해외시장 다변화 △제도적 기반 구축 등 4대 축을 중심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현장에도 밀착지원을 위해 중기부와 관세청이 협업한다. 관세 정보를 신속히 취합·전달하고, 철강·알

루미늄 파생상품 등 피해 우려 품목에 대한 심층 컨설팅을 확대한다. 대기업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관세 대응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동반성장지수 가점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둘째, 정책자금·보증 지원이 강화된다. 정부는 4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과 보증을 신속 지원하고, 수출다변화 특별보증 총량을 현행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책자금 지원 기준도 완화해 보다 많은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물류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도 신설했다. 수출비우려 지원 규모를 4,200억원으로 확대하고, 국제운송비 지원한도를 기존 3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두 배 상향한다. 또한 105억원 규모의 K-수출물류비우려를 2026년부터 신설해 국제운송료·특송비 등 물류비용을 상시 지원한다.

/오상근 기자

탄소산업진흥원, ‘새로운 도약 위한 선택과 집중’ 주제 경영성과향상 세미나 개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전북 부안에서 2025년 경영성과향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정부 출범 및 글로벌 산업 경쟁 심화 등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기관의 경영성과 창출 및 시장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선



택과 집중’을 주제로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기관 경영 및 사업 관리 방안 등에 대해 모색했다.

/오상근 기자

원광대학교 조현진 교수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이해와 통합적 접근’을 주제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를 중심으로 장기적 관점에서의 기관 혁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STR 김정성 대표는 ‘탄소소재·부품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방안’을 주제로 탄소융복합 소재부품 시장 창출 및 기업경쟁력 강화 방안 및 진흥원 핵심 사업의 추진 전략과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오상근 기자

전개공, 전북자치도 경영평가 2년 연속 ‘우수’

4년연속 평가점수 6.99점 상승… 뚜렷한 경영개선 효과

전북개발공사는 전북자치도 주관 2024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우수 등급(90.09점)을 획득,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공사는 공통지표와 특성지표를 합한 합계점수 90.09점으로 지난해 88.36점보다 1.73점보다 상승하고, 2023년(86.02점), 2022년(83.10점) 등 4년간 총 6점이상 꾸준히 상승, 점진적 경영개선 효과를 보여줬다.

이번 평가는 기관의 운영 및 사업 실적, 전년 대비 개선 노력 등을 기준으로 I 유형(경제·산업 분야), II 유형(사회문화·복지 분야)으로 나뉘어 실시됐으며, 평가 등급은 가~마 5단계로 부여됐다.

경제산업지침분야 경영평가 대상기관은 전북개발공사,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바이오통상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전북자치도콘텐츠 진흥원 등 8개 기관이다.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을 반영해 저출생·지방소멸 등 공공성 지표의 비중을 확대하고, 부채관리 이행 여부 등 재무 건전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공사는 이번 평가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전북형 반향주택 추진, 수소·도민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모델 수립,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완주·익산 국가산단 조성, 건설현장에 스마트관리시스템 도입, 자체 개발 AI 자동화 시스템 개발 적지에서 흑자경영 전환 및 부채비율 개선 등 안정적 재무구조 유지를 통해 공공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책임경영 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김대근 사장은 “올해도 익산 부송데시안 100% 분양, 혁신에코트2단지 분양 전환 완료, 민성에코트1단지 분양 전환 호조 등 주택사업 실질적 달성으로 경영성과 개선이 뚜렷했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